



즉시 배포용: 6/26/2015

주지사 **ANDREW M. CUOMO**

대법원의 혼인 평등 판결에 즈음한 **ANDREW M. CUOMO** 지사의 성명

**주지사, 이번 일요일 One World Trade Center의 첨탑을 레인보우 깃발로 밝혀도록  
항만청에 지시**

“뉴욕주는 혼인 평등을 위한 투쟁의 리더였는데 오늘의 대법원 판결은 우리가 위하여 그렇게 열심히 싸워온 것, 즉 혼인은 누구나 그들이 누구를 사랑하느냐와 상관 없이 주어져야 하는 근본적 권리라는 것을 단언합니다. 우리가 2011년에 혼인평등법을 통과시켰을 때 뉴욕주는 전국에 사회의 가장 큰 불평등 중 하나를 종식시켜야 할 때라는 메시지를 보내었는데 본인은 법원이 역사의 바른편에서 우리와 합류하는 것을 보니 기쁩니다. 사람들을 1급과 2급 시민으로 나누는 것은 잘못되었을 뿐만 아니라 한 국민으로서 우리의 정체에도 반합니다. Stonewall에서부터 Edie Windsor에 이르기까지 뉴욕주민들은 언제나 모두를 위한 평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투쟁의 일선에 있었습니다. 오늘 우리는 자랑스러운 뉴욕주민이고 자랑스러운 미국인입니다. 오늘, 진보가 행진합니다.”

*이 판결과 뉴욕시 프라이드 위크를 기념하여 주지사는 One World Trade Center의 408피트 첨탑의 등들이 6월 28일 일요일 밤에 레인보 깃발 속에서 점등되도록 지시하였습니다.*

###

다음 웹사이트에 가시면 더 많은 뉴스를 보실 수 있습니다 [www.governor.ny.gov](http://www.governor.ny.gov)  
뉴욕주 | Executive Chamber | [press.office@exec.ny.gov](mailto:press.office@exec.ny.gov) | 518.474.8418